

이충주 “요즘 잠자는 시간도 부족하지만 무대 설수 있어 감사”

‘팬텀싱어 올스타전’→‘그레이트 코멧’ 까지

드라마 ‘공작도시’ 첫 도전…“늘 설렌다”

“다 너무 매력적이고 멋진 일들이죠. 하나의 정제성을 정해두지 않고 나아가려고 해요.”

음악부터 연기까지 다재다능한 매력을 보여 주고 있는 배우 이충주가 JTBC ‘팬텀싱어 올스타전’과 뮤지컬 ‘그레이트 코멧’에 이어 드라마 ‘공작도시’까지 영역을 넘어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화상으로 만난 이충주는 “잠자는 시간도 부족했다”며 “하지만 힘든 것보다는 이렇게 일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환하게 웃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의도치 않게 쉬게 되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더 느끼고 있다는 그는 “무대에서 연기하고 관객들을 만나는 게 특별하게 주어지는 것이고 감사하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일이 주어지는 한 몸이 부서져라 연기해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3년여 만에 ‘팬텀싱어’ 무대 다시…‘에델 라인클랑’ 끈끈한 무대

지난 20일 종영한 JTBC ‘팬텀싱어 올스타전’에서는 ‘에델 라인클랑’으로 멤버들과 다시 뭉쳐 한층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다. ‘에델 라인클랑’은 지난 2017년 ‘팬텀싱어’ 시즌2 당시 3위를 차지했다. 그는 “넷이 함께 모여서 노래할 수 있는 무대가 그림과 간절했다”고 밝혔다.

오랜만에 ‘에델 라인클랑’ 멤버들과 만나 더 끈끈해졌다고도 전했다. “정규 1집 발매 후 콘서트를 열고, 이후 공백기가 조금 있었다”며 “멤버들끼리 음악적 활동을 보여주기 힘들었는데, 이번에 더 존중해지고 끈끈해졌다. 음악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더 단합하고 뭉쳐 한팀으로 방송을 할 수 있었다”고 돌아봤다.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는 선곡부터 연출까지 그가 주도적으로 이끈 ‘답배가게 아가씨’를 꼽았다. “공연할 때처럼 무대를 펼칠 수는 없을까 하는 갈증이 있었다”며 “멤버들 동의 하에 제가 꾸며보고 싶은 무대를 마음껏 해봤다”고 말했다.

“크로스 오버 무대로 굉장히 파격적인 게 나올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신선한 연출을 하려는데 도와줄 수 있겠냐고 제안했죠. 저희가 정적인 노래를 많이 해서 신나는 노래를 해보고 싶었어요. 멤버들이 도와줘서 좋은 결과를 얻었고, 크로스 오버계의 신선하고 파격적인 도전 아니었나 싶어요.”

물론 공연에 대한 부담도 있었다. 그는 “매회 공연에서 오는 압박감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라며 “그래도 그 부담 때문에 좋은 무대가 나올 수 있었다. 최대한 공연이라는 생각보다는 좋은 무대를 만들자고 생각했다”고 떠올렸다.

앞으로 ‘에델 라인클랑’ 팀 활동도 기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충주는 “멤버들 모두 활동에 대한 의지가 있다”며 “좋은 활동을 기대해서도 좋을 것 같다”고 미소 지었다.

‘그레이트 코멧’서 바이올린 연주 ‘눈길’…‘중고등학교 시절 전공’

지난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킹’으로 첫 무대에 오른 이후 ‘드라큘라’, ‘노르담드 파리’ 등과 연극 ‘아마데우스’, ‘어나더덕트리’ 등 다양한 뮤지컬과 연극 무대로 실력과 배우로 자리잡은 그는 현재 뮤지컬 ‘그레이트 코멧’에도 출연 중이다.

‘그레이트 코멧’은 톨스토이의 걸작 소설 ‘전쟁과 평화’ 중 일부 이야기를 기반으로 만든 뮤지컬로, 국내 초연 작품이다. 이충주는 극 중 항락을 추구하며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지닌 젊은 군인 ‘아나톨’ 역을 맡아 가장은 물론 바이올린 연주까지 완벽히 소화하고 있다.

이충주는 실제 바이올린을 전공하기도 했다. 그는 “관객들에게 완벽하게 녹아있는 연주를 보여드리고 싶었다”며 “오랫동안 악기를 쉬어서 걱정도 됐다. 연주의 완성도를 위해 연습을 정말 많이 했다”고 말했다.

“실제 제가 고등학교 때 쓰던 악기로 연주하고 있어요. 제 손에 가장 익숙 악기로 하고 싶

었죠. 연주에 비중을 뒀고, 공연을 위해 레슨도 다시 받고 일시생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연습했어요. 중고등학교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나톨’ 역에는 이충주 외에도 박강현, 고은성까지 트리플 캐스팅됐다. 더욱이 두 사람은 ‘팬텀싱어 올스타전’에도 다른 팀으로 출연해 이충주와 맞붙었다. 그는 “세 명이 갖고 있는 매력이 다 다르다. 누구로 보셔도 맛있는 ‘아나톨’이라며 “워낙 훌륭한 배우들이자 싱어들이어서 저한테도 신선한 자극이 됐다”고 말했다. ‘그레이트 코멧’은 객석과 관객을 공연의 일부로 만들어 호흡하고, 배우들의 감정을 고스란히 전한다. 다음 달 30일 막을 내리는데 그는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무대”라며 “들어오는 순간 무대의 화려함에 놀랄 거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뮤지컬일 것”이라고 관람 포인트를 전했다.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관객들과 더 호흡하며 함께 즐길 수 있었을 거란 아쉬움이 있어요. 하지만 공연을 할 때마다 행복한 엔드르핀이 나와요. 맛있는 역할을 맡게 돼 영광이고, 극에 갈등은 물론 활력을 불어넣는 데 주력하고 있어요. 한 달밖에 안 남은 게 벌써 아쉬운 마음으로 공연하고 있죠.”

드라마로 활동 반경 넓혀…‘강렬한 악역도 도전하고파’

무대를 넘어 이제는 드라마까지 진출했다. 올 하반기 방영 예정인 JTBC 새 드라마 ‘공작도시’에 검사 ‘박정호’ 역으로 출연한다. 그의 첫 드라마 도전이다.

이충주는 “예전부터 꿈이었다. 뮤지컬 배우를 하면서 드라마와 영화로도 활동 반경을 넓혀가고 싶었다”며 “어떻게 보면 그 꿈이 이뤄졌고, 그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감격스럽죠. 첫 드라마인데 매체에서도 연기력이 잘 다져져서 앞으로도 통련할 수 있는 배우가 됐으면 좋겠어요. 촬영은 너무 재밌게 하고 있어요. 설레는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이 일을 오래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 첫발을 내디딘 만큼,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넘나드는 배우로 성장하고 싶다. 그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면, 다 해보고 싶다”



며 “반전을 주는 강렬한 악역도 해보고 싶고, 스릴러도 좋아한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뮤지컬 배우로는 12년차, 그가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원동력은 뭘까.

“저는 진로를 여러 번 수정했어요. 바이올린 전공으로 예고에 갔고, 노래가 좋아서 성악과로 진학했죠. 이후 뮤지컬을 접하면서 어느새 10년이 넘었네요. 뮤지컬에서 노래도 큰 힘이 있지만 연기를 표현하는 도구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연극 무대에 발을 들였고, 연기에 더 매

력을 느끼면서 영화와 드라마에 대한 꿈도 갖게 됐죠. 이 일이 제게 주는 재미가 커요.”

다음 달 말 개막하는 뮤지컬 ‘마마, 돈크라이’로도 그를 만날 수 있다. ‘마마, 돈크라이’는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10주년 기념 공연을 취소하고, 올해 ‘10+1주년’으로 돌아왔다. 그는 “공연이 잘 올라갈 수만 있으면 좋겠다”며 “특별한 무대이고, 매력이 크다. 관객들이 아쉬웠던 만큼, 이번에 좋은 무대로 보답해드리겠다”고 미소를 보였다.



오은영·신애라·이수정 ‘요즘 가족 금쪽 수업’

다음달 8일 첫방송

채널A ‘요즘 가족 금쪽 수업’이 5월 첫 방송된다.

‘요즘 가족 금쪽 수업’은 완벽한 가족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특강 프로그램이다. ‘금쪽 수업’에서는 ‘육아 멘토’ 오은영 박사와 신애라 배우,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가 강연자로 나선다.

오은영 박사는 ‘부모인데 왜 그랬을까?’, ‘나를 미워해도 괜찮아’라는 주제로 특강을 펼친다. 신애라 배우는 ‘부모가 버려야 할 세 가지’를 제시, 진짜 부모가 되는 방법을 알려준다. 이수정 교수는 ‘어느 날 갑자기 죽는 아이는 없다’라는 주제로 수업을 펼친다.

‘요즘 가족 금쪽 수업’은 5월 8일 오후 9시 50분 방송된다.

뉴시스

김수현·차승원의 ‘어느 날’, 11월 독점 공개

쿠팡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쿠팡플레이를 통해 드라마 ‘어느 날(가제)’을 11월 독점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드라마 ‘어느 날’은 쿠팡플레이에서 공개하는 첫 번째 한국 드라마로, 배우 김수현과 차승원이 주연을 맡는다. ‘열혈사제’, ‘속삭임’의 이명우 감독이 연출하고, ‘무사 백동수’, ‘대박’을 집필한 권순국 작가가 각본을 쓴다.

총 8부작으로 제작되는 이 드라마는 한 여인의 미스터리한 살인 사건을 둘러싼 두 남자의 치열한 이야기를 그린다. 대중적 시각에서 형

사사법제도를 파헤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해당 작품의 원작은 영국 BBC ‘Criminal Justice’다. 이 작품은 ‘어느 날’을 통해 미국, 인도에 이어 한국에서 3번째로 리메이크된다. 미국 리메이크 버전인 방송사 HBO의 ‘더 나이트 오브(The Night Of)’는 에미상 13개 부문에 후보로 올라 5개 부문에서 수상한 바 있다.

쿠팡플레이는 쿠팡의 와우 멤버십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이라면 추가 비용 없이 월 2900원 멤버십 비용만으로 무제한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블랙핑크, ‘마지막처럼’ 뮤비 10억뷰 돌파…통산 4번째

K팝 남녀 아티스트 통틀어 10억뷰 이상 뮤직비디오 가장 많이 보유한 그룹 등극

그룹 ‘블랙핑크(BLACKPINK)’의 ‘마지막처럼’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서 10억뷰를 돌파했다. 블랙핑크 통산 4번째 기록이다.

24일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마지막처럼’ 뮤직비디오는 전날 오후 6시52분께 유튜브 조회 수 10억회를 넘어섰다. 지난 2017년 6월22일 공개된지 약 3년10개월 만에 거둔 성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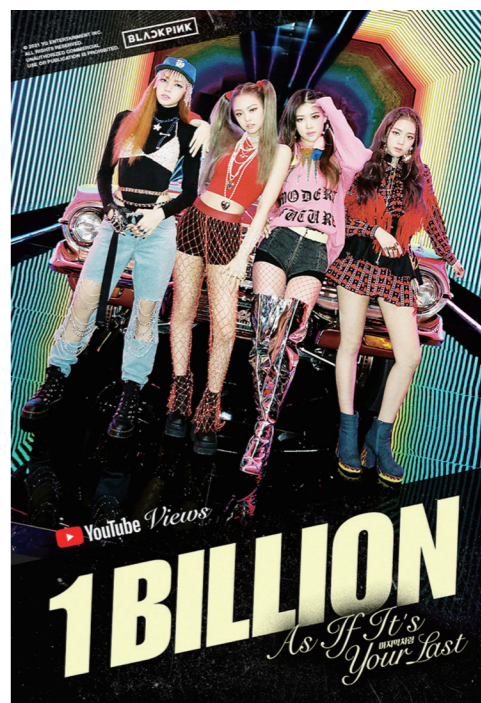
이로써 블랙핑크는 K팝 남녀 아티스트를 통틀어 10억뷰 이상 뮤직비디오를 가장 많이 보유한 그룹이 됐다. ‘마지막처럼’에 앞서 블랙핑크의 ‘뚜두뚜두(DDU-DU DDU-DU)’,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 ‘봄바’ 뮤직비디오가 10억뷰 고지를 밟은 바 있다.

특히 15억6000여만뷰로 K팝 그룹 최다 조회 수 타이틀을 얻은 ‘뚜두뚜두(DDU-DU DDU-DU)’를 비롯해 총 27편의 역대급 영상 조회 수 증가 속도가 줄지 않고 있다. 글로벌 영향력과 꾸준한 인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마지막처럼’은 중독성 있는 리듬과 로맨틱한 가사가 특징인 댄스곡이다. 노래 제목처럼 마치 이번이 마지막 사랑인 것처럼 모든 힘을 다해 열심히 사랑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곡은 발매 당시 미국 빌보드가 발표한 ‘올여름을 강타한 유튜브 최고의 곡 TOP 25’에 이름을 올렸고, 그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K팝 비디오로 선정됐다.

블랙핑크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도 폭발적으로 늘었다. 지난해 7월 4000만명을 돌파했던 구독자 수는 1년이 채 되지 않은 이날 현재 6030만명 이상이다. 첫 정규앨범 활동과 로제의 솔로 프로젝트가 이어지며 무려 2000만 명 넘게 증가한 것이다.

블랙핑크는 유튜브에서 여성 아티스트 최초·최고·최다 수식어를 연신 갈아치우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약 200만명 차이로 바짝 추격 중인 전 세계 1위 아티스트 저스틴 비버마저 뛰어넘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장기용·이혜리, ‘간 떨어지는 동거’ 포스터



장기용과 이혜리의 ‘간 떨어지는 동거’ 한집살림 포스터가 공개됐다.

tvN ‘간 떨어지는 동거’는 999살 구미호 여신 ‘신우여’와 물대신 99년생 요즘 인간 ‘이담’이 구슬로 인해 얼떨결에 한집살이를 하며 펼치는 비인간적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다. 오는 5월26일 오후 10시 30분 첫 방송한다.

장기용은 999살 ‘엄근진(엄격·근엄·진지)’ 구미호 여신 신우여 역을 맡는다. 이혜리는 구미호한테도 할말 다하는 99년생 요즘 인간 이담 역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날 공개된 포스터는 “담이씨, 감기 걸리면 안돼요. 내 구슬은 소중한니까”라는 카피로 두 사람이 여우 구슬로 인해 얽히게 됐음을 암시한다. 신우여의 친절한 존댓말 어딘가에 어린 살벌함이 호기심을 자극한다.

김준수, 코로나19 음성 “다음달 5일까지 자가격리”

가수 겸 배우 김준수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24일 “배우 김준수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소식을 접한 뒤 23일 코로나19 검사 후 오늘 오전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김준수는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배우와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며 “이에 5월5일 정오(낮 12시)까지 일시적으로 모든 스케줄을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